



▲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현장

회장은 일본이 동위원소 생산 중단 선언에 따라 한국은 아시아 일대에 동위원소를 공급할 유리한 입지를 선점한 지금 한국은 아시아 시장공략은 물

론 세계시장 공략을 목표로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성회장은 “회원사 주축의 우리 협회는 회원사를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정부와 회원사의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협회는 국제적인 행사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RT산업으로 세계 속에 한국이 높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주력함은 물론 회원사의 부담을 줄여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7월 14일자 한국전기산업 신문 -

유관기관 동정

과 ● 학 ● 기 ● 술 ● 부

제5회『원자력 안전점검의 날』개최

제 5회 원자력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7월 1일 과학기술부를 비롯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전기공주식회사, 두산중공업주식회사 등 8개 기관에서 개최되었다.

과학기술부는 금년부터 적용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방사선 작업종사자 피폭 저감화 계획」에 관한 Round-Table을 한국방사선동위원소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비파괴검

사진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원자력관계기관의 비상연락체계도 점검(응답률 95%)하였다.

원자력관계기관에서는 하절기 태풍, 폭우에 대비한 시설안전을 중점 점검하고, 원자력발전 안전성능지표 발표회(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안전전문가 초청 강연(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및 우수정비 사례발표(한전기공주식회사) 등을 수행했다. 과학기술부는 동 행사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한·베 양국간 원자력협력 가속화

과 학기술부 조청원(趙靑遠) 원자력국장은 7월 25일 과기부 초청으로 방한중인('03.7.20~26)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Vuong Huu Tan 등 3명의 베트남 원자력협력 대표단과 면담하고, 양국간 원자력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간 양국은, 원자력협력협정체결('96.11),

기관간 원자력협력약정체결('02.2), 고위급 대표단 방문, 제1차 원자력협력위원회('02.7) 개최 등을 통하여 원자력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이번 대표단 방한시에는 베트남의 노후화된 연구로의 유지·보수 지원, 2013년부터 운전 목표

인 신연구로 건설 사전타당성연구, 베트남의 원자력발전 건설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연구 및 방사성의학원 설립 지원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대 베트남 원자력 기술·인력·

장비의 수출 촉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Vuong Huu Tan 위원장 등 베트남 대표단은 한국 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등을 방문하여 세부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2/4분기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평가 결과, 모두 0등급

과 학기기술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은 영수)에서 개최된 ‘제42차 원자력 사고·고장등급평가위원회’에서 지난 2/4분기에 발생한 4건의 사건을 모두 ‘0등급’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실시한 사고·고장 등급평가 대상은 ▲ 4월-영광 1호기 원자로냉각제 펌프 ‘B’ 정지에 의한 원자로 정지 ▲ 5월-영광 1호기 터빈제어유저압력에 의한 원자로정지 ▲ 5월-울진 2호기 발전기 고정자 접지계전기 동작에 의한 원자로정지 ▲ 6월-울진 1호기 원자로 고온정지 중 안전주입 발생 등 총 4건의 사고이다.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은 1등급~7등급으로 분류되며, 0등급은 원자로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등급 미만, 1~3등급은 고장(Incident), 4~7등급은 사고(Accident)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해 세계적으로 공통 활용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 사고·고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매 분기마다 원자력 안전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등급평가를 실시해 공개하고 있다.

한 ● 국 ● 원 ● 자 ● 력 ● 안 ● 전 ● 기 ● 술 ● 원

제2회 방사선안전평가기술 심포지움

제 2회 방사선안전평가기술 심포지움이 2003년 7월 16일(수)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약 55개기관 250여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심포지움은 방사선안전 현안에 대한 3개 주제의 특별강연을 포함한 개회세션과 방사선방호, 방사성폐기물, 방사선환경, 방사성동위원소 등 4개의 분과로 나누어 주제발표 및 토론시간을 갖는 기술세션으로 구성되었다.

▲ 특별강연에서 주제발표자는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조장한 것도,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도 관련 전문가들에게 있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이에 공감하였다. 또한 방사선 안

전문화의 조기정착을 전제로 한 지속적 안전규제 합리화 추진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기술세션에서는 각 분과별로 방사선안전연구 현황 및 향후 방향설정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의가 있었으며, 현안에 대한 각종 건의 및 제안이 있었다. 또한 각 방사선안전 분야간의 연계성 확보 및 산·학·연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향후 국내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산업의 안전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종합 방사선안전 심포지움으로 더욱 발전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